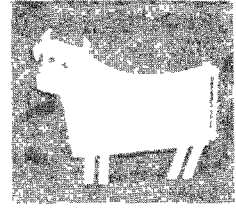


축산업계 동향



농수산물 수입축소

— 申부총리, 국내가격안정에 필요한 최소량만 수입 —

申鉉鎬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난 6월 8일 TBC-TV 보도특집에서 농업정책에 관해 언급, 농업정책은 이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전제, 국제가격에 비해 2~5배나 더 비싼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단위생산고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申부총리는 농축산물의 단위생산고를 높이기 위해선 경지정리나 기계화, 협동화를 추진하는 한편 도로, 유통시설 등 사회간접 자본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대단위 영농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수출입정책은 주곡자급은 꼭 유지하고 불충분한 것은 수입하되 농촌에 대한 희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주곡자급체계를 위한 가격지지정책을 지속하며 주곡을 제외한 나머지 농축산물은 국내가격안정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申부총리는 소득증가와 함께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상황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었고 이런 상태는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곡은 경제·국방·전통을 고려해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하나 육류, 채소류, 과실류 등 그밖의 생산품은 사회적 수요에 맞게 투자를 조정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산물 수입자유화 보류

— 기획원, 농민생산의욕 돋우게 —

정부는 농산물에 관한 수입 자유화 촉진 방침을 후퇴, 당분간 수입개방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정부정책의 방향전환은 수입개방확대방침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과 증대의욕위축 등을 없애는 한편 현행제도로서도 필요한 경우 수입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 수출입 기별공고에 사료원료 등 일부 농산물을 수입 자유화 품목으로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를 마지막단계에서 철회하였다.

정부는 당초 농산물 수입을 ▲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이 안되는 품목 ▲ 생산이 되더라도 국제경쟁력이 없는 품목 ▲ 기타 나머지 품목의 순으로 자유화시켜나갈 계획이었다.

한우 간질증(肝蛭症) 검진

— 촉진, 8월부터 4만마리 대상 —

축산진흥회는 한우의 간질증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한우 4만마리에 대해서 간질증(肝蛭症) 검진을 실시하고 1만마리는 구제사업을 벌이는 등 한우 간질증퇴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촉진회가 마련한 한우 간질증퇴치사업계획에 의하면 6월 19일부터 각도의 공개업수의사 1백명에 대해 검진 및 구제요령을 교육

축산업계 동향

시커 각 시도 및 가축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간질증 발생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진과 구제사업을 벌인다.

한편 축진회는 올해 제 1차적인 간질증퇴치사업에 이어서 앞으로 5개년간에 걸쳐 2세 이상의 한우중에서 특히 자주 간질증을 일으키는 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진과 구제를 실시하고 지역별 발생분포와 구제효과를 조사분석, 한우의 간질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줄이기로 했다.

농기수입관세 면제

— 농수산부, 농가부담 줄여 기계화촉진 —

농수산부는 영농기계화를 촉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수입농기계에 대한 관세와 농기계용 유류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세를 면세토록 할 방침이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는 농기계 구입및 사용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임으로써 농업 기계화를 촉진, 급격한 이농으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을 배우기위한 것으로 농기계용 유류 면세와 수입농기계 관세 감면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오는 7월의 임시 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농기계용 유류에 대한 특별 소비세와 부가세를 면세할 경우 내년에 휘발유에서 64억 9천만원의 비롯, 경유 11억 9천 7백 만 원, 석유 14억 6천 8백만원 등 모두 91억 5천 5백만원의 농가부담이 줄어들고 현재 평균 15%로 되어있는 이앙기, 수확기 등 수입 농기계에 대한 감세감면으로 86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편

— 농수산부 4개년계획, 3천억 들여 —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 82년까지 모두 3천 16억 9천 3백만원을 투입, 농수산물유통구조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11일 농수산부가 마련, 관제부처협의에 들어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계획(79~82년)에 따르면 전국을 품목별 주산단지의 집중도에 따라 유통권을 분류하고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변동추세 등 가격정보를 전산화하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1천개의 종합판매점과 3백 50개의 민영종합식품연쇄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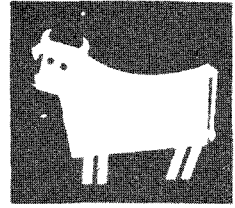
이 계획은 또 플라스틱용기 4백 92만개를 개발, 농수산물의 포장을 개선하고 집출하차량 1천 5백 25대를 구입, 수급사정에 따라 필요물량을 적기에 출하할 수 있게 하며 저장고 9만 8천평 가공시설 10개소를 증설하는 한편 농수협종합 도매시장 10개소(농협 4수협 6)를 늘리도록 돼있다.

돼지고기 장기저장 성공

— 농개공, 식생활 안정·생산자 보호 —

돼지고기의 장기저장법이 개발돼 계절적으로 기복이 심한 돼지고기값 안정은 물론 연중 계속 공급이 가능, 국민식생활 안정과 생산자 보호에 기여가 기대되고 있다.

농어촌개발공사(사장: 진봉현) 식품연구소는 지난 해부터 돼지고기 장기저장법을 연구 실험해 왔는데 섭씨마이너스 37도로 급속 냉



동하여 섭씨마이너스 20도 저장고에서 1년 동안 저장한후 품질의 물리, 화학적 분석과 소비자들의 기호도 관능검사결과에서 맛의 차이가 전혀 없었다는 것.

특히 돼지고기의 주성분인 단백질과 지방질의 변화도 없었으며 고기 맛의 영향을 주는 부드러움(軟度) 및 즙액도 역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산 육우 1만두 도입

— 두당 30만원 용자 —

농수산부는 축산증식기반의 확충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뉴질랜드로부터 육우(고기소) 1만마리를 도입하고 농가의 도입육우 구입자금융자액을 20% 인상, 농가입식을 촉진하기로 했다.

농수산부에 의하면 6월말까지 5천마리, 하반기중에 5천마리씩 모두 1만 마리의 육우를 도입, 강원·충북·전북·경남 및 제주도 등 5개도에 집중적으로 입식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도입육우의 80%는 호당 1~5마리씩 농가에 입식시키고 20%는 호당 10~50마리씩 축산전업농가에 분양입식 시키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또 농가의 육우구입을 위해 현재 축산진흥기금에서 마리당 25만원씩 용자 지원하고 있는 것을 30만원으로 늘려 농가입식을 촉진하기로 했다.

낙농농가 시설 확충

— 농수산부, 축산진흥기금 21억 들여 —

농수산부는 축산진흥기금 21억원을 들여

낙농농가의 축사시설, 착유기, 냉각기, 절단기 등을 지원한다.

농수산부가 밝힌 낙농경영개선 지원사업요령에 의하면 낙농경영합리화로 위생적인 우유생산공급과 사육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키 위해 새마을낙농단지를 중심으로 시범화농가를 선정, 축사시설 1만마리분에 14억원, 착유기, 냉각기, 절단기 1천대씩에 각각 2억원과 새마을 낙농단지조성 유가공업체에 집유차량 10대분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새마을 낙농단지는 10마리 이상 사육농가와 입식계획농가중 시범화할 수 있는 대상자를 관할도지사가 6월말까지 선정하는데 당년 신규조성농가가 1차 지원대상이다.

옥수수 국제값 상승

— 촉진회, t당 1백 47달러에 도입 —

사료 주원료인 옥수수의 국제시세가 올들어 계속 치솟고 있어 국내 축산업계를 불안케 하고있다.

축산진흥회에 의하면 지난 76년이래 시카고 곡물시장 옥수수가격은 t당 1백달러 이하선을 유지, 지난해 9월에는 84달러까지 내려갔으나 올들어 계속 오르기 시작, 지난 4월초 1백달러를 돌파했고 최근에는 1백 5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격상승으로 국내 배합사료용 옥수수 도입가격도 올해 초반 C & F 기준 t당 1백 26달러에 비해 최근에는 17% 정도 증가한 1백 47달러선에 이르고 있다.

촉진은 지난 4월 25일 1백 34달러 86센트

축산업계 동향

에 17만t을 구매했으나 6월 1 일에는 1백 46 달러 16센트에 41만 3천t을 도입한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옥수수국제가격 상승은 유류파동등 국제적요인과 미국 옥수수생산농민들의 데모 등에 영향을 받아 옥수수 주산국에서 가격상승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펴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 옥수수가 76년부터 연 3년간대폭작으로 재고량이 증가, 인플레이 속에서도 계속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소련·중공등이 대량 구매할 것이라는 추측이 국제시세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진관계관은 국제시세가 오르더라도 국내공급가격은 가격안정기준인 t당 1백35달러선에 계속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구매된 옥수수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므로 당분간 시세를 관망한후 다시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農開公, 子會社民영화방침

-한국냉장등 단계적으로 불하-

농수산부는 농어촌개발공사의 기구개편을 계기로 한국냉장·한국낙농·한국물산·코텍·호남잡사등 5개투자회사에 대한 민영화문제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23일 농수산부당국자에 따르면 農開公을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 중심으로 개편가 공식품개발등 민간식품업체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투자사업을 지양, 이미 투자한 정책사업 부문에 대한 정비작업에 착수, 농개공사회사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불하할 방침이라고 한다

가축개량사업 확대

- 농협, 번식양돈장에 자금지원 -

농협중앙회는 가축개량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하고 번식양돈장조성에 1개소당 1천 2백 50만원, 강화지구 교잡은 보급사업에 두당30만원 한도내에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농협의 가축개량사업을 보면 강화지구 교잡우 보급사업으로 한우와 샤로레교잡을 생산농가에 1두당 30만원씩, 육우 종모우지원사업으로 육우단지나 육우전업목장중 농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농가에 두당 50만원씩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번식양돈장조성사업으로 도지사가 선정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양돈장 1개소당 1천 2백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종계장 및 부화장 육성사업으로 축산진흥회장이 선정한 자에게 3천만원 한도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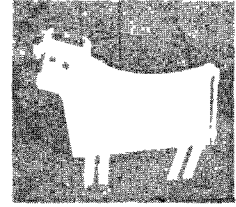
가축개량사업자금은 3년 거치 2년균분상환조건이다

모든 특수조합 81년까지 자립화

- 농협, 영세·유사조합 합병적극추진 -

농협중앙회는 축산 및 원예조합 등 특수조합의 자립화 육성을 적극 추진, 작년말 현재 1백 40개조합을 1백 31개 조합으로 합병하여 오는 81년까지 전 특수조합을 완전 자립화하고 자체자금조성을 71억원 규모에서 2백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수조합은 작년말 현재 자립조



합 40개, 자조조합 89개, 기초조합 11개이던 것이 올해는 자립 70개, 자조 61개, 기초 4개로 되며 80년에는 자립 1백개, 자조 31개로 기초조합이 일소되는 81년에는 자조조합마저 일소돼 완전자립화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농협은 축산 및 원예조합의 자립화와 함께 자체자금조성액을 작년말 현재 71억원에서 81년에는 2백억원 규모로 늘려 자립경영 기반을 확립하고 기업적 전업농 및 비조합원가입을 확대키로 했다.

농협은 단계적인 육성계획에 따라 기초조합은 경영관리능력배양과 사업기반확립에 주력해 자조조합으로 끌어올리고 자조조합은 봉사체제의 확립과 사업확대로 자립조합으로 육성하며 자립조합은 특수농업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할 방침이다.

농협은 특수조합육성에 따른 자금 지원도 지난해 73억 4천 5백만원에서 올해 2백 44억 6천 6백만원, 81년에는 2백 94억 6천 5백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수조합의 사업규모는 지난해 1천 9백 7억원에서 80년에는 4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돼지 5만 6천마리 수매

— 농수산부, 값안정 위해 50억 들여 —

농수산부는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생돈 및 생우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자금 50억원을 들여 소 1만 1천두와 돼지 4만 5천두를 수매 비축하기로 했다.

이희일농수산부장관은 15일 기자회견을 갖

고 이같이 밝히고 돼지가격안정을 위해 축산진흥회로 하여금 20일부터 1일 5백 마리씩 수매비축토록 하고 일부는 수출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농협으로 하여금 수매하여 전국 1천 2백개의 농협직매장에 하루 3백~5백마리씩 공급하고 수입돼지고기의 방출은 일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소값 안정을 위해서는 축산진흥기금에서 축산농가에 소 1마리당 최고 50만원씩 특별금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농가가 소를 팔지않고 생축을 비축토록 하며 전국 20개소의 우수단협을 선정, 생축을 수매사육토록 하여 적정가격이 보장됐을 때 출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돼지값은 지난 1월 10만 6천 4백원 하던 90kg짜리가 13일 현재 8만 2천 5백원으로 하락했고 소의 경우 지난달 4일 64만원하던 4백kg짜리가 지난 9일 현재 68만 7천원으로 크게 올랐으나 가격안정대 하한선인 69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돼지의 경우 가격안정대선은 90kg짜리 기준 하한선 9만원, 상한선 10만원으로 소의 경우(4백kg 기준) 하한선 69만원, 상한선 72만원으로 각각 정했었다.

수입육우 입식제도 개선

— 농수산부, 전업자엔 가구당 50두로 —

농수산부는 육우증식기반조성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뉴질랜드로부터 들여올 1만두의 도입육우에 대한 농가입식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이달 말

축산업계 동향

까지 이미 5천두의 도입이 확정되어 강원·충북·전북·경남 및 제주지방에서 실시중인 도입육우 입식사업이 울들어 계속되고 있는 국내한우가의 하락영향으로 용자수축 기피등 입식을 포기하는 농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이제까지 각도 입식 물량중 80%를 농가에 20%를 전업 입식에 배정하던 것을 도지사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호당 20두로 된 전업입식 기준을 50두로 늘리며 축산진흥기금에서 두당 2백50만원씩 지원하던 용자금을 3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용자조건은 3년거치 2년 상환에 연리 12.5%로 되어있다.

'79여름농민대학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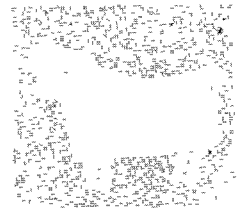
— 7월 19일부터 건대 축산대학에서 —

전국농업기술자협회(총재: 유달영)에서는 새로운 영농정보와 과학적인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실리위주의 연수를 위해 '79년도 여름농민대학을 오는 7월 19일(목)부터 8월 4일(토) 까지 전국대학교 축산대학에서 개최한다.

전기반·후기반·고등반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농민대학은 양돈·양계·양토과의 자급사료의 개발과 이용방법(KIST 이용방 박사), 산란계 및 육계의 사양관리와 경기의

| 반 별 | 연 수 기 간 | 과 명 | 정원 | 일 정 |
|-------|---------------------|-----------|------|------|
| 전 기 반 | 7월 19일(목)~7월 23일(월) | ① 채소원예과 | 60명 | 4박5일 |
| " | " | ② 식량·특작과 | " | " |
| " | " | ③ 약용식물과 | " | " |
| 후 기 반 | 7월 23일(월)~7월 27일(금) | ① 과수원예과 | 60명 | 4박5일 |
| " | " | ② 축산경영과 | " | " |
| " | " | ③ 화훼관상수과 | " | " |
| A 고등반 | 7월 27일(금)~7월 31일(화) | ① 사과·왜성사과 | 60명 | 4박5일 |
| " | " | ② 시설원예과 | " | " |
| B 고등반 | 7월 31일(화)~8월 4일(토) | ① 양돈양계양토과 | 60명 | 4박5일 |
| " | " | ② 한우낙농과 | " | " |
| " | " | ③ 유기농업과 | " | " |
| 4 개 반 | 17 일 간 | 11 개 과 | 660명 | |

- ① 장소: 전국대학교 축산대학
- ② 숙식비, 교재대, 강사료, 선진지견학비 등 1인1과 수강료 18,000원
- ③ 참가자격 제한 없고 선착순으로 마감



전망(전대축대 오세정교수) 등을 위시 하여
강사와 과제선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
다

농민대학은 14년동안 1 만 2 천 2 백 22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79년 여름농민대학 반편성 및 연수일정은
표와 같다.

SPF 종란시판 개시

— 녹십자 수의약품에서 —

녹십자수의약품(주)은 미국 SPAFAS 社
로부터 SPF 종란을 수입하여 뉴캐슬 생독
B₁백신을 제조하여 시판에 들어갔다.

이번 수입되는 종란은 다음과 같은 병인체
가 없다고 한다.

- ① Avian Adenoviruses(조류 아데노바이러스)
- ② Flow Pox(계두)
- ③ Infectious Bronchitis(Conn.): (전염성기관
지염: 컨벡티컬트형)
- ④ Infectious Bronchitis(Mass.): (전염성기관
지염: 메사추세츠형)
- ⑤ Infectious Bursal Agent(전염성 점액낭염:
감보로병)
- ⑥ Infectious Laryngotracheitis(전염성 후두
기관염)
- ⑦ Influenza(Type A)(인플루엔자 타입 A)
- ⑧ Lymphoid Leukosis Viruses(임파양 백혈
병)
- ⑨ Lymphoid Leukosis Antibody RSV-RAV1
(임파양 백혈병 항체 RSV-RAV 1)
- ⑩ Lymphoid Leukosis Antibody RSV-RAV 2
(임파양 백혈병 항체 RSV-RAV 2)
- ⑪ Marek's disease(마레병)

- ⑫ Mycoplasma gallisepticum > CRD(만성호흡기병)
- ⑬ Mycoplasma Synoviae
- ⑭ Newcastle disease(뉴캐슬병)
- ⑮ Avian Reoviruses(조류 레오바이러스)
- ⑯ Reticuloendotheliosis(세망내피증)
- ⑰ Salmonella Pullorum-typhoid(추백리, 닭티
푸스)
- ⑱ Avian Encephalomyelitis(조류 뇌척수막염)
- ⑲ Haemophilus gallinarum: Coryza(코라이자)

보리엔실리지의 사료가치 옥수수엔실리지와 같아

— 미, 캔사스주립대 연구결과에서 밝혀—

미국 캔사스 주립대학에서 최근 6년 동안
보리, 밀, 연맥엔실리지의 사료적 가치를 연
구한 바에 의하면 보리엔실리지의 사료 가치
는 옥수수엔실리지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고 한다. 거세된 옥수수육성우를 대상으로 연
4회에 걸친 시험 결과를 보면 아래표에서 보
는바와 같이 세번은 옥수수 엔실리지를 급여
한 경우의 증체율이 약간 높았으며 한 번의
시험에서는 보리엔실리지의 경우가 높았다.
이렇게 보리 엔실리지의 사료가치가 옥수수
엔실리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보리 엔실리
지중의 곡실함량이 높았기 때문이라 한다.

이 연구에 사용한 엔실리지는 모두 황숙기
에 수확한 것이며 수분함량이 60%정도 되도
록 수분을 첨가해서 엔실리지를 담갔다고 한
다. 이 시험결과에 의하면 보리, 밀 또는 연
맥이나 옥수수엔실리지 어느 것을 막론하고
질이 좋은 엔실리지를 제조하려면 황숙기에
수확해서 수분이 55~65% 즉 건물함량이 35
~45%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며 사료포 단

축산업계 동향

위면적당 가장 많은 가스화양분 총량(TDN)을 생산하려면 황숙기중간에 수확해야한다고 한다.

육우 육성우에 대한 보리엔실리지의 사료적가치

| | 증체량 | | 사료 | 엔실리지 | 건물기 준단백 |
|-----|-----------|-----|-----|------|------------|
| | 일당 | 섭취량 | | | |
| | (kg) | (%) | 효율 | 의전물량 | 질함량 |
| | 1회 (100일) | | | | |
| 옥수수 | 1.12 | 8.4 | 3.4 | 40.9 | 8.3 |
| 보리 | 1.04 | 7.9 | 3.5 | 32.9 | 9.5 |
| | 2회 (90일) | | | | |
| 옥수수 | 1.28 | 8.7 | 3.0 | 34.8 | 9.1 |
| 보리 | 1.19 | 7.9 | 3.1 | 34.8 | 12.0 |
| | 3회 (87일) | | | | |
| 옥수수 | 1.11 | 8.5 | 3.5 | 37.8 | 7.8 |
| 보리 | 1.22 | 8.6 | 3.2 | 35.3 | 11.5 |
| | 4회 (89일) | | | | |
| 옥수수 | 1.14 | 8.7 | 3.5 | 37.2 | 8.3 |
| 보리 | 1.06 | 8.8 | 3.8 | 35.7 | 9.0 |

바브콕협력회 창립총회 개최

— 회장에 차상진(봉명부회장)씨 피선 —

바브콕협력회 창립총회가 지난 6월 20일 오후에 한일농원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기술 및 시장정보교환을 위해 결성된 본 협력회는 매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본협력회 회장에 차상진(봉명부회장 대표)씨를 선출하고 다음 월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차후 전달할 예정이다. 본협력회회원

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기) 계유부회장, 경성부회장, 양지부회장, 한일농원

(충남) 봉명부회장, 서라부회장

(경북) 신일부회장, 봉산부회장, 제일부회장

(경남) 대한부화연구소

(전남) 지산부회장

(전북) 동양부회장

돼지고기 수출지원방안 강구

— 농수산부, 가격폭락 막기 위해 —

농수산부는 생돈출하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여름철을 맞아 돼지고기수요는 크게 줄어들어 가격폭락현상을 빚게 됨에 따라 7월부터 수출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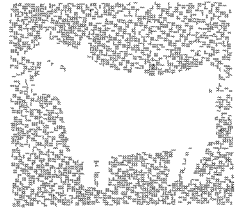
농수산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돼지고기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수입까지 했으나 올해는 불경기와 당국의 소비절약시책에 영향을 받아 돼지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므로써 체화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 양돈농가보호를 위해 축산진흥회로 하여금 구매비축토록 하고 가공업자에게는 자금을 지원 수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동물약품협회 회원친선

바둑대회 성료

— 6월 21일 한국기원에서 —

동물약품협회(회장: 최죽송)는 지난 6월 21일 한국기원 503호실에서 제 4회 회원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회원 40여명이 참석하여 단체전(3인 1조), 개인전 A 조(4급이상), 개인전 B 조(5급 이하)로 나누어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 제일화학공업사가 단체전에서 우승을, 개인전에서는 한국바이엘의 황현철(A 조), 제일화학의 심광경(B 조)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입상자에게는 트로피 및 푸짐한 부상이 수여되었는데 성적은 다음과 같다.

○단체전

- 1 위 : 제일화학공업사
- 2 위 : 과학사료공사
- 3 위 : 삼우화학공업(주)

○개인전 A 조

- 1 위 : 황현철 (한국바이엘)
- 2 위 : 박전호 (과학사료)
- 3 위 : 김창구 (한국바이엘)

○개인전 B 조

- 1 위 : 심광경 (제일화학)
- 2 위 : 이희구 (동물약품협회)
- 3 위 : 박재길 (대성미생물)

신촌사료, 김포공장 준공기념 상호, 상표, 상품명 포장디자인 150만원 현상 모집

배합사료제조업체인 신촌사료(주)에서 는 지난 2 년간에 걸친 김포공장 신축공사를 마무리 짓고 일산 400톤 규모로 사료를 생산하기에 앞서 양축업자에게 더욱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실한 기업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새로운 상호(회사마크) 상품명, 포장디자인을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현상 모집하고 있다.

〈모집 요령〉

| | | 우 수 작 | 가 작 |
|-------------|--|-------|------|
| 상 호 | | 40만원 | 10만원 |
| 상 표(마크) | | 40만원 | 10만원 |
| 상 품 명(○○사료) | | 20만원 | 5 만원 |
| 포장디자인(사료포) | | 20만원 | 5 만원 |

응모마감은 8 월 10일이며, 제출처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256 신촌사료. 자세한 것은 372-1881~4로 문의하시면 된다.

— 가우회 정기야유회 —

젊은 축산인들의 친목모임인 가우회(회장: 김정인)는 지난 16, 17일 양일간에 걸쳐 포천 백로유원지에서 정기야유회를 가졌다 사료, 제약업체와 일반축산인 회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야유회에서는 금년도 계획인 친선탁구대회와 세미나 개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되기도 하였는데 이날 야유회는 동방유량, 동양화학, 중앙약품, 과학사료가 창조하였다.

부산한일부화장 설립

한일농원은 경상남북도 지역에 있어서의 초생추 분양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한일부화장을 설립하고 6월 1 일 부터 업무에 들어감으로서 이 지역의 양계인들에 보다 신속하고 보다 건강한 병아리를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한일부화장이 취급하는 품종은 육계로서 아나크(Anak)와 아바에이카(Arbor Acres), 산란계로서 바브콕B-300V

축산업계 동향

(백색), 바브콕B-380(갈색), 그리고 셰이버(Shaver)등이다.

대표 : 강신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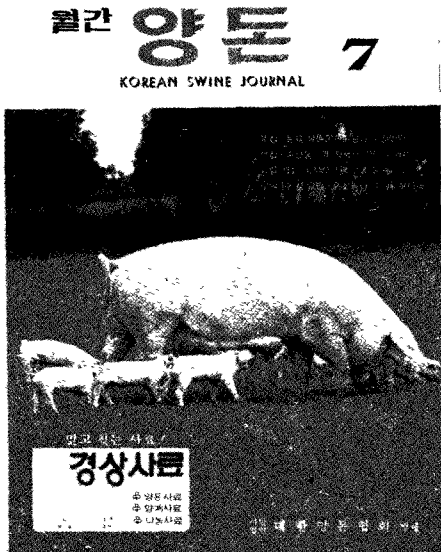
주소 : 부산시 북구 삼락동 391-3

전화 : 93-0250

「월간양돈」 창간호 발간

— 대한양돈협회 발행 —

국내 최초의 양돈전문지 「월간양돈」 창간호가 지난 6월 25일 대한양돈협회(회장: 함재훈)에서 발간되었다. 이번 창간호의 특징으로는 돈육유통문제현황과 시정방안, 축산물가격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다루었으며, 편집실장 박원순(전 새마을신문사 기자), 편집부장 송용석(전대축산과졸), 편집차장 박영식(전대축산과졸), 정영숙(전 섬유산업사 근무)씨가 편집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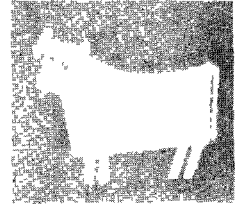


업계 단신

- ◆ 장호원단위농협조합(조합장: 이상식): 중앙축산(주)의 후원을 받아 6월9일 오후 양계·양돈사양기술강좌를 개최.
- ◆ 이동춘(전 신약원, 건대 수의과졸): 서울 강남구 천호동 410-186(서울 신탁은행 맞은편)에 동호가축약품상사를 개설
☎ (48) 5600
- ◆ 코리안 인터내셔널 에이전시스(주): 부사장에 문해식(전 한국화이자 농축부장)씨를 기용하고 아래와 같이 축산관계품목 취급개시 ●사료공장시설 ●배합사료 원료 ●양축 기자재 ●사료첨가제및 약품 ●제약회사 기자재 ●유·육가공시설등.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60-199 (남송빌딩 602호) ☎ (79) 1485, (79) 7058
- ◆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최죽송): 회원사 31개사로부터 모금된 원호성금 3백5십만원을 6월 13일 중앙일보사에 기탁.

이 전

- ◎ 제일화학(대표: 서정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9-4(성동슈퍼 2층5호)로 사무실이전 ☎ 46-0482
- ◎ 삼동개발(대표: 이봉기): 서울시 강남



구 서초동 232-2(은정빌딩502호)로 사무
실이전 ☎ 252-1371~2

◎ 제일사료 대구직매소 : 경북 경산군 경
산읍 삼북동 23으로 이전 ☎ 8-2257

◎ 한국코-킹 서울연락사무실 : 중구 소공
동 50번지(동명빌딩 신관 3층) ☎ 28-1231

◎ 삼송리가축약품(대표 : 이소진) :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삼송리 61-16호로 이전

☎ 389-9658

◎ 동래축산종합상사(대표 : 김창호) : 부산
축산종합상사에서 동래축산종합상사로 상
호를 바꾸고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502-12
로 이전 ☎ (부산) 52-3092

◎ 삼일농장 서울사무소(영업부) :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61-7로 이전

☎ (직통) 261-0387 (교환) 261-8173~4,
266-1525~6, 267-1556, 269-5193, 1797

◎ 고창양계센타(대표 : 신흥중) : 서울사무
소를 강남구 서초동 동신아파트 5동 103호
로 이전 ☎ 51-2550

◎ 삼양부화장(대표 : 원용주) : 경기도 의정
부시 가능1동 31-24로 이전

☎ (의정부) 2089, 3968

◎ 서림부화장(대표 : 구은) : 경기도 평택
군 청북면 현곡리로 이전

☎ (청북) 455, 446

전화번호 변경

◆ 홍성사료<주>(대표 : 정태원) : 7월 1일
부터 44국에서 444국으로 국번변경

☎ (44) 9341~6

◆ 본회 전남지부(지부장 : 조규성) : 광주

(4) 9059로 전화번호 변경

◆ 한국특수사료<주>(대표 : 이중희) : 본사
및 인천공장 전화번호변경 ☎(인천) (83) 5001~4

업계 인사

◎ 한국화이자<주>(대표 : 김중배) : 아래와
같이 농축부 승진인사발령

부장 김종상(전 농축부 차장)

차장 홍영선(전 농축부 과장)

과장 최명구(전 농축부 주임)

과장 김수문(전 농축부 주임)

주임 여운돈 주임 박호인

이선수(산업대 수의과졸)씨와 강태일(전
대 수의과졸)씨를 신입사원으로 특채

◎ 유한양행<주>(대표 : 조권순) : 농축부차
장에 서규원(전 부산영업소장)씨를 기용하
고 유일준(전대 수의과졸)씨를 특채

◎ 부국사료<주>(대표 : 한호섭) : 기획부장
에 김대성(전 KAL근무)씨를 기용

◎ 과학사료(대표 : 신정재) : 정동환(전 유
한양행)씨를 특채

◎ 코리안 인터내셔널 에이젠시스<주> : 김
순주(전대 사료과졸)씨를 영업부에 특채

◎ 부산한일 부화장(대표 : 강신국) : 상무
에 박종만씨를 기용하고, 영업부에 홍경의,
최창익씨를 특채

◎ 한협가금육종농장(대표 : 박도현) : 영업
부에 이영택(전대 축산과졸)씨를 기용

◎ 서림부화장(대표 : 구은) : 안철희(전
한일농원 농장장)씨를 전무로 기용